

삶의 質의 環境的 接近

강 동 식*

目 次

- I. 序 論
- II. 環境의 意義
- III. 삶의 質의 環境的 接近 : 삶의 質의 새로운 模索과 環境의 重要性
- IV. 삶의 質과 環境에 관한 最近의 研究傾向
- V. 結 論

I. 序 論

21c를 목전에 둔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정책의 우선 과제를 국민들의 삶의 質 향상에 두면서 환경문제¹⁾ 해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므로써 발생한 각종 역기능 현상이 사회발전을 추진하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물질적 충족도 중요하지만 외부적 조건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생활환경 등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환경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의 흐름에 맞는 교육, 직장, 안전, 편리함 등 사회적 조건도 필요하다.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 환경문제란 환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합목적성을 인간의 작용에 의해 그 기능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결과 오염 등이 발생하여 인간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박봉규, 인간과 환경, 동성사, 1995, PP. 31-32.

우리는 지난 30여년 동안 앞뒤를 돌아 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서구의 발전모델에 입각, 산업화와 근대화를 위하여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60년대 국민 1인당 소득 1백불 미만이던 것이 '90년대 중반에 들어 오면서 1만불을 상회하게 됐고, 96년 말에는 경제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된 자연 파괴, 대기 및 수질오염 등과 범죄의 증가, 사회안전, 안녕시설의 미비, 교통혼란 등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잃게 되므로써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발전에 회의를 품게됐다. 이때문에 환경문제는 경제 및 사회문제 등 모든 문제와 얽힌 총체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환경의 중요성이 재인식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환경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인간의 삶의 문제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는 환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물과는 다르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쌍방향적 관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 날 환경문제를 다룰 때는 환경을 위한 환경이라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짙다.

이 글은 21c를 목전에 둔 현실점에서 체제론적 접근을 통해 삶의 質과 환경관계를 재조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환경이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환경의 개념정의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 삶의 質과 환경에 관한 최근의 연구경향들을 살펴 보았다.

II. 環境의 意義

1. 環境論의 概要

환경이란 17c까지만 해도 自然(nature)만을 의미했다. 이때 인간은 환경에 대해 별다른 제어장치를 갖지 못한채 환경의 작용에 순응해야만 했다. 인간의 역사속에 '神'이 등

장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두된 것이 '環境決定論'이다. '환경결정론'이란 모든 생물은 외부조건인 환경에 의해 지배되며, 생물의 존재나 활동양식은 모두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논거다.

그러나 18c에 들어서면서 생물은 환경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의 활동에 의해 크게 변화시킨다는 사상이 싹트게 되었으며, 후반의 산업혁명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환경결정론'이 폐색되면서 모든 생물은 환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쌍방향적 작용²⁾을 한다는 '環境可能論'이 대두되면서 환경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양화 된 것이다. 환경가능론의 대두는 사회학, 심리학, 생태학 등 학제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까지의 환경관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환경가능론에서는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작용을 환경작용이라 하고, 생물이 환경에 작용하여 변화시키는 현상을 환경형성작용이라고 하고 있다.

21c의 환경관에 관한 paradigm은 "eco-development"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eco'는 생태학(ecology)과 경제학(economics)의 회합 어원 'eikos'³⁾에 근원을 둔 것으로서 경제발전은 생태학과 경제학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⁴⁾

2. 環境의 概念

환경의 개념은 '환경가능론'으로 인해 매우 다의적인 뜻을 지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환경은 milieu, environment 등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狹義로는 우리의 가까운 주변을 말하고, 廣義로는 지구,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⁵⁾

2) 안문석, 환경행정론, 법문사, 1995, P. 31.

3) eikos는 원래 집 'house'을 의미하였었는데 이후 공동체(community)를 의미하게 되었고 관리와 보존이라는 뉘앙스를 지니게 되었다. 김 번웅, 환경 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PP. 24-25.

4) 김번웅 외, 전개서, PP. 24-25, ; 김형욱, 아라논총,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P. 568.

5) 박봉규 외, 인간환경, 동성사, 1995, PP. 15-16.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기본법(제3조)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과 생활환경(Living Environment)으로 분류하고, 자연환경에는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을 총칭하고 있다. 생활환경에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하고 있다.

또한 유엔환경기구(UNEP : 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는 환경의 구성요소를 크게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에는 대기, 대양, 물, 암석권으로, 인간환경에는 인구, 주거, 건강, 생물계, 산업, 에너지, 운송, 관광, 환경교육 및 홍보, 평화와 안전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또한 학자에 따라 다소 표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학자는 환경계를 물리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으로 분류하고, 물리적 환경에는 생물계와 문화계가 진화하는 구조와 배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개념은 인간을 주체로 정의되어야 한다. 인간을 주체로 할 때 환경의 의미는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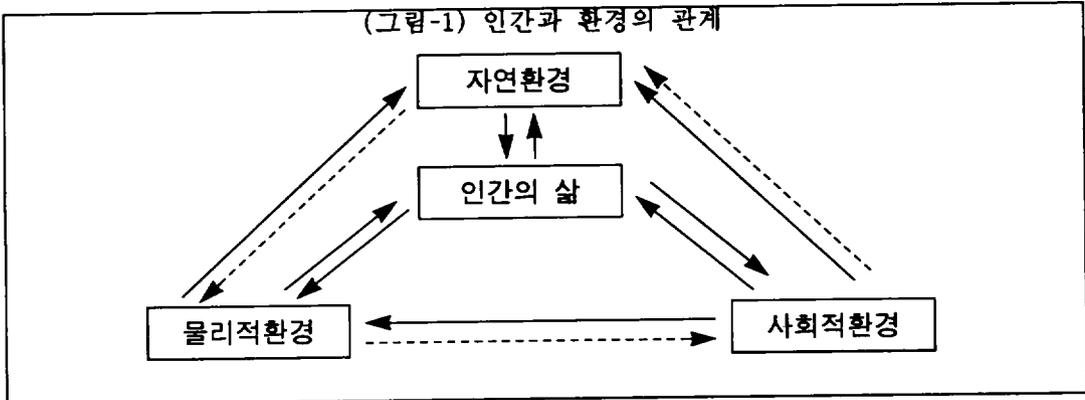
광의로는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무형의 객체”를 뜻한다. 이때의 환경은 인간이 배경으로 하여 살아가는 자연과, 자연을 통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요소, 그리고 문화를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환경으로 본다.

협의로는 물리적 환경만을 의미 하기도 한다. 물리적 환경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필요로 하고 인간의 개성과 삶의 목표를 개발시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물리적 상황의 결합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또한 크게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구분되며, 인공환경은 다시 형태가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환경과 도로, 공장, 자동차 등 형태가 있는 물리적 인공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환경의 구성요소는 인간을 주체로 할 때 자연환경, 사회환경, 인공환경 등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주축으로 하여 상호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6) 정대연, 환경과 삶의 질, 계대신문, 1995. 3. 8.

인간과 환경관계를 체계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그림-1)



* 인간은 자연환경에서 태어나 스스로가 만든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사이에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며 받기도 한다. 신국현, 환경학개론, 신광문화사, 1996, P. 50. 재인용.

Ⅲ. 삶의 質의 環境的 接近 : 삶의 質의 새로운 模索과 環境의 重要性

자연은 본래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새로움을 창조하며 무질서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힘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한다. 이 때문에 자연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변화과정과 함께 변화하면서 적응하게 된다.

환경변화는 자연 스스로 변화하는 자연적 변화(natural environment change)와 인간의 작용에 의해 변화하는 인공적 변화(man-made environmental change)로 구분된다. 자연적 변화는 대부분 오랜 시간이 걸리나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환경의 質⁷⁾을 창출하

7) 박봉규 등은 환경의 質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박봉규 등, 전개서, PP. 21-22.

(1) 생물학적 안전단계--환경의 質이 가장 기초를 이루는 하부구조로 생물의 종의 일원인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 생명유지, 건강 등과 관계가 깊음.

는 데 반해, 인공적 변화는 급속하게 이루어 지므로써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인간의 존재가치는 삶을 영위하는 환경의 질적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유지에 있다. 안전성과 쾌적성은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이다. 경제적 풍요로움과 안정은 양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질적 환경, 즉 미화, 깨끗한 공기, 물, 땅등은 삶의 質을 추구하게 된다.

1. 삶의 質의 새로운 模索

산업화와 근대화는 우리의 삶을 그런대로 풍족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파괴,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은 오히려 삶의 質을 저하시키고 있어 삶의 質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삶의 質에 대한 논의는 외적이고 전시효과적이며, 경제적이고 양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이고 실질적이며, 문화적이고 質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전개되어 왔다.

물론 삶의 質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힘들다. 미국의 Rand 연구소나 한국의 申道澈 등은 삶의 質이란 “개인의 안녕감, 삶의 만족감, 행복감” 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요소를 강조하였다.⁸⁾ 행복이란 마음가지기에 달린 것이며, 질 높은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어떤 상황에서건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성에 입각해서, 인간의 안녕감, 삶의 만족감, 행복감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환경의 영향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질 높은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마음이 평안해도 환경적인 조건이 나쁘면 질 높은 삶을 누리기는 힘들다. 따라서 삶의 質은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

(2)공중위생단계--폐기물 처리, 하수 처리와 같은 도시환경위생문제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환경오염(공해)이 중심이 됨.

(3)쾌적성의 단계--생활의 質 또는 환경의 質의 과제가 되는 단계. 자연환경보존과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생태계의 균형유지 등.

(4)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보존단계

(5) 예술, 문화, 미의 단계--환경질의 최고 단계로서 아름다움, 문화, 예술의 욕구충족 단계.

8)신 도철, “한국인의 삶의 質 대연구 -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1981. 5., 참조.

못지 않게 객관적인 환경조건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김경동 교수는 삶의 質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⁹⁾

1. 경제적 안정과 보장 : 성장과 향상, 고용, 생산성, 소비와 생활비
2. 자연환경 공해 : 자연자원보존과 개발, 여가를 위한 자연환경, 심미
3. 물리적 조건(주택과 근린집단) : 교통, 통신, 기타 서비스
4. 사회적 환경 : 안정과 질서, 신체적 보장, 보건위생, 인적자원 개발, 인구, 사회관계
5. 문화적 환경 : 정신적, 정서적, 상징적, 매스미디어.

21c를 목전에 둔 후기산업사회에서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누렸던 삶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해야한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온 경제성장으로 경제적 풍요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삶의 質을 향상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 표면적인 GNP의 향상이 개인의 삶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빈곤에서 풍요로 이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주관적인 삶의 質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그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간환경이 훼손되는 등 삶의 질에 많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행복감과 안정감에 있어서 중요한 객관적 조건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주택과 생활환경 등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었다.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산업사회가 낳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삶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관적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¹⁰⁾

9) 김경동, 발전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 1979, PP. 181~182.

1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Quality of Life Indicators," 1972, P. 35.

삶의 質의 環境의 接近

1. 자연환경 : 자연미와 야생동물의 보존 및 일상적으로 황폐하지 않는 들과 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보존
2. 생활환경 : 도시, 도외, 시골생활 및 노동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유지. 청결한 공기와 물, 용지, 일반위생 및 보건, 주택 및 건물의 안전, 건축과 도로의 미관에 대한 최저조건의 유지
3. 일반보건 : 기본적 위생과 안전의 유지, 충분한 건강보호, 청소년을 위한 철저한 의료시설
4. 소득과 기본적 경제적 안녕 : 개인의 경제적 착취의 최소화, 최저보장 생활수준, 공평한 부의 분배와 향상된 경제상황을 추구하기 위한 지속적 기회
5. 고용과 생산성 : 공평한 부의 분배와 향상된 경제상황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 기회를 위한 전반적 대비
6. 총 경제진보 : 소극적 및 예방적 생산(예컨데 매년통제 고안)과 환경의 위해관계 경비를 고려한 사회적 총 경제생산
7. 연수, 교육 및 교양 :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문제해결능력 및 세계의 가치관을 습득하는 기회
8. 위협과 강제에 관한 정의와 자유 : 위해 혹은 안녕을 위협하는 요소의 최소화, 사회와 개인간의 상호관계작용에서 행해지는 부정적 제재에 반하는 긍정의 범위의 확대
9. 개인자유 : 자유로운 표현, 생활형태(life style)의 선택을 위한 기회, 사회적 관용과 소외의 수준.

물론 인간의 삶의 質은 개인의 주관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견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삶의 質은 개인적 생활에서의 안녕감, 사회, 경제적 조건, 자연환경적 구조의 안녕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의 의미가 강하므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할 수 있다.

2. 삶의 質에 있어서 環境의 重要性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제시한 예가 아니더라도 삶의 質의 조건 중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인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의 생존기반인 자연환경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환경결정론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환경을 애니미즘(animism) 및 샤머니즘(shamanism)적 정서에 의해 자연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며, 신격화 하므로써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발달한 과학, 기술, 산업화와 도시화 등과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환경가능론”의 대두는 환경문제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됐다. 석탄, 유류, 자동차 배기가스, 세제와 농약 등에 의한 대기 및 수질 오염, 산성비, 지구온난화,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고갈,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질의 오염 등은 환경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많은 조건이 따른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결한 음식물, 쾌적한 주택과 생활환경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우리의 삶, 즉 포괄적인 개념인 삶의 質의 기반을 최악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파괴가 계속된다면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는 커녕, 생존을 계속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무절제와 방탕으로 인한 자원관리는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없게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ement)을 추구해야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는 무한경쟁과 성장, 발전도 중요하지만,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Rachel Carson은 1962년 그의 저서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곤충, 새, 물고기를 비롯한 자연의 권리를 역설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병든 인간사회의 행태와 인류생존의 위기를 고발하고 있다. 그녀는 곤충을 박멸하기 위해 만든 화학 농약인 DDT는 단순한 약품이 아니라 자연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독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농약인 DDT는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시 개발한 화학전의 부산물 이다--농약의 사용은 봄철에도 새 생명이 다시 피어나지 못하는 죽은 봄을 초래할 것이다---

30여년 전 Carson의 경고처럼 농약(DDT)은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에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음식물까지 오염시키고 있으며, 월남전 당시 密林(jungle)을 없애기 위해 사용했던 枯葉劑의 부작용

은 그 당시 월남전에 참여했던 우리 장병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화가 이룩되면서 물리적 인공환경이 고도의 수준으로 형성되고, 그 결과 자연환경이 원래의 합목적성을 결여하게 되고, 이 결여가 다시 인간의 삶의 방식을 구속하는 새로운 사회환경을 만들므로써,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삶의 質의 구성요소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결한 음식, 쾌적한 주택과 생활환경 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크게 3 종류로 분류하면 쾌적성, 안전성, 편의성 등이다. 이 3가지 영역은 또 4가지 요소로 나누고 있다.¹¹⁾

첫째, 자연조건 : 여기에는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기후, 물, 대기, 녹지공간 등이 포함된다. 둘째, 경제적 요소 : 개인의 수입수준, 소유하고 있는 재화 또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 고용기회 등.

셋째, 공공적 요소 : 개인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보건, 위생, 교육의 기회, 공공안전 등.

네째, 사회적 요소 : 주택, 인구, 정보통신, 여가선용, 사회병리 등.

이들 요소중 첫번째의 자연조건은 자연환경이고, 둘째, 셋째, 네째는 사회환경에 해당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삶의 質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質이 높아질 수록 삶의 質도 높아진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개인이 느끼는 삶의 質은 주관적(심리적)인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 삶의 質(만족도)은 “개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란 정의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요인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주관적 요인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조건들에 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요인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¹²⁾ 그러나 주관적 태도를 결정지워 주는 요인이 객관적인 환경의 영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삶의 質은 환경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후기산업

11) 정대현, “환경과 삶의 質”, 제대신문, 1995. 3. 8.

12) 삶의 質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는 학자로는 우리 나라의 신도철, 미국의 A. H. Cantril 과 C. W. Roll Jr, Diener, Rice 등이 있다. 신도철, “한국인의 삶에 관한 대연구”, 정경문화, 1981. 5. : Albert H. Cantril and Charles W. Roll Jr., “The Hopes and Fears of

사회에서는 많은 선진국 학자들은 삶의 質의 연구를 환경과 밀접히 연관시키는 소의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환경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다.¹³⁾ 다양한 논의들을 3가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에 의존한다는 이론이다. 환경위기의 원인은 과학기술의 미발달에 있는 것이므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환경문제 관리를 이에 의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해결책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둘째, 생태론적 입장이다. 이는 환경의 기본문제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와 철학에서 발견하며 그 해결책도 인간의 근본적인 자연관과 자연내에서의 인간관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입장은 환경결론적 입장으로 자연을 신격화 할 수 있어, 근대화 등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구조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환경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그 중에서도 인간의 불평등 관계와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에서, 사회문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에서 유래한다는 점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을 위한 사회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와 인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결국 환경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 환경지향적 과학기술에 의한 치유, 사회구조 불평등과 지배와 억압의 해소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American People(N. Y. . potomac Associates, 1971), 등을 참조할 것.

또한 삶의 質을 객관적 및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요소로 보는 학자에는 Abbey and Andrews, Head and Wearing, 등이 있다.

13) 데이비드 페퍼, 현대환경론, 한길사, 1989, 참조.

IV. 삶의 質과 環境에 관한 最近의 研究傾向

인간의 삶의 質과 환경과의 함수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 국가들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국민생활이 풍요로워진 1960년대로 볼 수 있다.¹⁴⁾ 미국에서는 '60년대 초 존슨 대통령의 국정 시책으로 내건 “위대한 미국건설” 표명 이후 국가 기관이나 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UN은 1972년을 “세계 환경의 해”로 정하고 세계환경회의를 개최하면서, 환경문제는 한 국가의 국내적 관심사가 아니라 지구촌의 상호의존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¹⁵⁾ 차원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UN, 우리나라 등의 환경과 인간의 삶에 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美國의 경우

미국에서 국민의 삶의 質과 환경문제에 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지난 1960년대 초반, 아이젠하워대통령이 국가목표위원회(Commission on National Goal)를 발족시킨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Bauer가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4) 60년대까지는 선진국의 경우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족이 곧 인간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생활수준(Level of Living) 향상에 힘을 썼지만, 70년대 들어 생활이 여유로 워지면서 가치관이 변해 사람들은 삶의 質(Quality of Life)을 추구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의 William Nordhaus 인데 그는 GNP에는 공해, 교통혼잡, 소음, 기타 불쾌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제외 됐다면서 이의 포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William Nordhaus, “GNP and the Quality of Life”, Presented at AAAS Symposium “Can We Develop an Index for Quality of Life?”, (December 30, 1971).

15) 안보란 말은 지금까지 국가나 영토에 국한시켜 자주 사용되던 말이다. 그런데 인간안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해결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고용, 소득, 깨끗한 환경 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1994년 UN의 발간한 '인간 개발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중앙일보, “빈곤, 범죄 세계적 차원해결”, 1995. 3. 6. (5면).

고 말할 수 있다.¹⁶⁾ 미국의 경우 1930년대를 전후해 일어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s : GNP) 등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인 경제지표(Economic Indicators)를 개발, 발전시켰었다. 그러나 경제지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GNP는 종합적인 사회개발목표의 성취라는 정책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특히 구성원의 삶의 質의 향상이라는 건강, 교육, 영양, 환경 등과 같은 생활요소와 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적 요소를 측정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후 60년대 후반에 들어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지표"를 개발하게 되면서 개발목표의 중심이 "경제에서 사회로" 이전하였다.¹⁷⁾ 사회지표가 갖는 특징을 flax¹⁸⁾ 와 Sheldon과 Freeman¹⁹⁾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Flax에 의하면 사회지표는 인간의 복지와 만족에 관계된다고 생각되는 생활의 質의 측면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Sheldon과 Freeman은 사회지표가 장기간에 걸친 국민생활의 상태를 비교하고 파악하자면, 사회통계의 장기적인 작성과 자료수집이 있어야만 장기추세와 전망을 위한 시계열(time series)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16) Raymond A. Bauer, "Societal Feedback",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2, 1967. Bauer의 사회지표운동은 미국 존슨대통령이 "위대한 사회건설"을 주장하면서 미국인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교육복지성(HEW)등에 사회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를 의뢰하면서 사회지표가 등장하게 된것으로 보고 있다.

17) "사회적"이란 형용사는 영어로 "Social"로 표기되는데 이 어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경제적"(economic)이라는 관행적 개념으로서의 사용을 제외한 모든 인간생활의 국면에 관련되는 문헌에서 사용되어 지며, 둘째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인간들간의 관계(relationships among human being)에 속하는 모든 일, 즉 사회학에서 다루어 지는 주제에 관한 것 등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사회지표의 사회란 뜻은 경제지표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협의로도 사용되며, 통합적 개발체계로서 "사회개발지표" 및 "사회개발목표" 등의 의미로서 "사회적"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될 때에는 경제사회, 환경문제 등 모든 대상을 동시에 포괄하므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김영섭, 사회개발계획론, 법문사, 1985, P. 24. 각주 참조.

18) Michael J. Flax, "Futur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Additional Social and Urban Indicators," Working Paper V, The Urban Institute, (July, 1, 1971), 김영섭, 전거서, PP. 33-35, 재인용.

19) E. B. Sheldon, and H. E. Freeman, "Notes on Social Indicators : Promises and Potential," Policy Sciences, 1, 1970, PP. 97-111, 김영섭, 전거서, PP. 34-35, 재인용.

이들 지표의 등장으로 사회의 흐름을 파악 국민의 복지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책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날로 훼손, 오염되면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미국에서 1969년 환경보호법(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 CEQ)로 하여금 대기와 수질에 대한 지표개발의 인식과 필요성을 낳게함으로써 삶의 질과 환경관계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이다.

삶의 質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學者

- (1) Bauer, Biderman, Duncan, Gross²⁰⁾ 등.

2) 研究機關

- (1) Russel Sage Foundation, 미시건대학교의 사회조사연구소, 시카고대학교의 여론조사연구소(60-70년대)
- (2) 오크릿지 국립실험소(1971)의 “오크릿지 공기질의 지수”
- (3) 스탠포드연구소(1971)의 “살충제에 관한 환경지표”
- (4) 미들연구소(1972)의 “공기질과 대기권 재생”
- (5) 스미소니안 연구소(1972)의 “야생동물과 자연환경에 관한 지표 및 지수”
- (6) 환경위원회(CEO)

등이 있다.

이들 학자들과 연구소의 관심영역은 공기 및 수질오염의 측정, 위험물질의 사용한계치의 측정, 塵介처리, 토지이용과 토양보존, 자원고갈, 야생물의 관리 등 이다.

20) R. A. Bauer, “Social Indicators,” (MIT Press, Cambridge Mass., Fourth Printing, 1972).

Albert D. Biderman, “Social Indicators and Goals,” (MIT Press, Cambridge Mass, 1966).

Otis Dudley Duncan, “Toward Social Reporting,” (Russell Sage Foundating, New York, 1969). 등 많은 학자들이 있다.

사회 및 환경지표의 개발에 힘입어 포괄적인 측정 수단으로 인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의 발전이다. 이같은 발전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충격적인 필요와 긴급성을 요했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개발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다.

2. 國際機關

UN은 각 회원국 뿐만 아니라 전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UN 헌장 제55조에 “전인류의 높은 생활수준에의 증진과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사회개발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고 명시하므로써 전인류의 인간다운 삶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²¹⁾로서, 이 회의 이후 1972년 12월 UN총회 결의에 따라 1993년에 UN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 UNEP)을 설립하고 해년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정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 인류에 고취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1995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사회발전 정상회의는 사회발전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4개 국에서 120여명의 세계정상급 인사와 정부대표, 3천여개의 비정부기관 대표 1만여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10개항의 공약과 행동계획을 포함하는 코펜하겐 선언을 채택했다.²²⁾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발전 달성을 위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법적 환경을 창조한다.
- 2) 인류의 윤리, 사회, 정치, 경제적 의무로서 단호한 국가단위의 행동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의 빈곤을 근절한다.
- 3) 경제·사회적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완전고용의 달성을 촉진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작업과 일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한다.

21) 이 회의는 1970년대 이후 계속되었던 각종 물, 재생가능한 에너지, 인구나 관련된 회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22) 김동배, “코펜하겐 선언과 사회개발의 방향”, 자치행정, 1995. 5월호 참조.

삶의 質의 環境的 接近

- 4) 불우하고 약한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참가와 안전, 단결, 기회의 평등, 다양성의 존중, 관용, 무차별, 모든 인권의 존중과 촉진에 기초한 정의롭고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 5)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존경을 촉진하며, 남녀의 평등을 실현하며, 정치, 사회, 경제, 시민, 문화적 생활과 발전에서 여성의 지도적 역할과 참여를 인정하고 촉진한다.
- 6) 기본적 의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과 정신, 육체적 건강에 대한 최상의 표준, 그리고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기회를 촉진하고 달성한다.
- 7)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 인적 자원의 발전을 촉진한다.
- 8) 구조적 조정계획들을 수립할 때 빈곤의 근절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사회적 통합의 촉진이라는 사회발전목표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 9) 정상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행동과 지역,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회발전에 할당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을 증대시킨다.
- 10) 동반자 정신 아래 UN이나 다른 다자간 기구를 통해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 지역, 소지역적 협력의 틀을 개선하고 강화한다.

그동안 UN의 환경, 아동, 인권, 인구, 여성 등의 사회부문을 주제로 일련의 세계대회를 개최했었지만 이처럼 포괄적인 경제, 사회문제를 다루기는 처음이며, '인류의 행복'을 논하는 지구 최대의 회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은 지속가능한 인간발전(Sustainable Human Development²³⁾이라는 용어의 매력에 있다 할 수 있으며, 경제발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회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삶의 질과 환경 관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세계보건기구(WHO)
- (2) 국제노동기구(ILO)
- (3) 식량농업기구(FAO)

23) 여기서 말하는 인간 발전이란 경제성장을 도모하되 그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며 환경을 보호하면서 발전하자는 새로운 발전 paradigm이라 할 수 있다.

(4) 교육과학 문화기구(UNESCO)

(5) 사회개발연구원(UNRISD)

등이 있는데 이 기구들은 63-70년에 거쳐 생활수준과 복지에 관한 사회지표를 개발, 인간생활의 質的 가치(Qualitative Value of Life)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지표를 발표하는 등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3. 韓國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해 환경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정책에 의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가 신설되었으며, 사회보장심의 위원회에서 “사회개발 구상”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고²⁴⁾, 69년 11월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시기로 보고있다.²⁵⁾ 그후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이 제정·공포, 1980년에는 환경청이 발족되었으며, 헌법²⁶⁾에 환경보호권이 마련되었다. 또한 1990년 8월에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환경오염분쟁조정법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1년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1992년에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²⁷⁾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 유지에 힘쓰고

24) 우리나라에서 사회지표작성을 위한 노력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은 1967년경 이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197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 속에 사회개발의 내용을 확충시키겠다는 정책적의지아래 사회개발장기계획의 작성에 착수했다. 사회개발모형은 UN사회개발연구원의 사회지표 모형에 따라 사회지표가 작성되었으며, 사회개발장기계획의 작성결과 [사회개발 제1집 : 기본구상](1968년), [제2집](1970년), [제3집](1973년), [사회개발-부분별사업전망](1974) 등이 출간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이들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사회지표의 개발을 시도하면서도 사회개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5) 정부수립 초창기였던 1949년 민유림조립 10개년 계획 등과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제정하기도 했었다.

26)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7) 한국정책학회, 환경, 자원정책론, 박영사, 1996, P. 162..

있다. 또한 정부도 1995년 3월 세계의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삶의 質을 높이는 5가지의 기본 원칙과 6가지의 중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5가지의 기본원칙으로는 (1) 최저 수준보장의 원칙, (2) 생산적 복지의 원칙, (3) 정보화 효율화의 원칙, (4)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5) 안전 중시의 원칙 등이다. 이는 국민들이 최저 수준이하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특히 환경오염, 범죄, 마약, 불량식품, 부실공사 등 생활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한 6가지의 정책과제로는 (1)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 (2) 노인 복지의 확충, (3)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확대, (4)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5) 사회안정체제의 확립, (6) 환경개선종합대책 마련 등으로 급증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비하여 연금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각종 사고 및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60-70년대의 산업화 이후 富가 축적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자연환경이든 사회환경이든)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V. 結 論

인간 자신도 지구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인간의 생존은 지구생태계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인간은 생식육, 생존육, 극복육 및 생활증진육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에 작용을 가하는 등 끊임없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간의 환경이용은 엔트로피(entropy)를 크게 증대시켜 생태계의 동적 균형을 깨뜨리고, 인간에 의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인간의 적응능력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인간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 집중되어, 폐수나 폐기물이 발생하더라도 환경의 자정능력으로 정화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2,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져와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반면, 자원의 수요급

증과 자원고갈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은 자정능력을 상실하므로써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또한 공장에서 내뿜는 각종 매연은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 온실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개발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산림 훼손은 생태계를 파괴, 수십만 종의 동, 식물을 멸종시키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말미암아 생산기반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80년대 이후 발생하고 있는 황사현상, 산성비, 공기와 물의 오염 등 각종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물질적 충족도 필요하지만 외부적 조건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생활환경 등과 교육, 안전 등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 요소이다.

삶의 質은 환경의 質적 가치와 비례하므로 환경을 생태적으로 잘 보존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 개발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제는 자연고갈, 오염은 경제외적 존재가 아니라 "負의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갖는 가치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수용해야 하고, 오염물의 배출이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처리 국민에 수시로 공개할 때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